

문화와 공공도서관

김 석 동

(경상북도립상주도서관 관장)

“공공도서관이 사회의 제 가치 중에서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효용 정도가 얼마나 되는가”라고 물어보자. 이 물음에 대해 도서관인은 일반적으로 “도서관은 정보와 자료를 다루는 곳이고, 지역문화의 핵심기관이니까 중요하다”라면서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사회적 가치에 대해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정보와 자료를 다루는 조직이 인터넷을 비롯하여 아주 다종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이 지역문화의 핵심기관이라고 우리 사회가 현실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지도 의문이 든다. 그래서 우리 도서관인과 여타 사회 구성원 간에 도서관에 대한 이해가 크게 다르고, 이것이 공공도서관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도서관의 질적 가치를 사회로부터 어느 정도 보장받는 구체적 대안으로 “공공도서관에서 문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화란 “認知가 깨어 세상이 열리고 생활이 보다 편리하게 되는 것. 철학에서 진리를 구하고 끊임없이 진보 향상하려는 인간의 정신적 활동 또는 그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성과를 이르는 말”이다. 그래서 서구의 문화 관련 학자 및 정책담당자들이 문화를 우리 삶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부문의 뿌리가치(ROOT VALUE)로 파악하고, 그 뿌리가치의 형성은 독서 즉, 책읽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우리의 경우 이러한 문화적 의미가 현실에서 어떻게 배태(胚胎)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첫째,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21세기는 경제와 문화가 국력의 중심”이라는 얘기가 있다. 여기서 사용한 문화는 한 산업으로서의 문화이다.

둘째는 “문화수준을 높여야 한다”라는 막연한 문화수준론이다. 이 표현에 대한 현실적 인식은 대체로 유물 유적관람을 둘러하는 것이거나 영화 연극을 1편이라도 더 보자는 뜻이 다소 보태어져 있는 것 같다.

셋째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문화를 정치 경제 사회와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으로 보는 시각이다. 대체로 문화의 의미를 예술에 한정한 표현이다.

넷째는 '98년도 조선일보사에서 설문 조사한 내용을 보면 “문화”라고 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남대문과 같은 문화재 내지는 연극 영화 음악 미술 등을 연상한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가 정신적 물질적 성과 이전의 치열한 내적 성찰에서 비롯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위의 네가지 범주는 기본적으로 문화의 사전적 의미와 일정 부분 일맥상통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문화가 끊임없이 진보 향상하려는 인간의 정신적 활동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도외시키고 정신적 물질적 성과 자체로 간주하거나 단순히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것 정도로 인식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이렇듯 문화에 대한 일반인들의 언급이 너무 편의적, 선택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공공도서관은 지역문화의 핵심기관”이라고 앞으로도 계속 도서관인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문화가 우리 삶의 내용적 제 가치와 병렬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류의 초기성 기호인 01, 03처럼 제반 가치의 형식적 뿌리가치를 이루는 독서적 초기성의 개념으로 해석해 나가는 노력이 공공도서관의 진정한 가치 구현에 일조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이 늘상 주장하는 “공공도서관은 지역문화의 핵심기관”이라는 주장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고 있지 못하고 현실의 제반 문제점들과의 괴리를 적절히 설명하고 개선할 수 없다면 이제 그 말을 그만 써야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